

#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The Factors Affecting Librarian's Multicultural Acceptance

이 연 옥(Yeon-Ok Lee)\*\*

장 덕 현(Durk-Hyun Chang)\*\*\*

### < 목 차 >

I. 서론	2. 설문 문항 구성
II. 이론적 배경	3. 자료의 수집
1. 다문화수용성	IV. 연구결과
2.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다문화수용성의 측정
III. 연구방법	2.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측정도구	V. 결론 및 논의

### 초 록

한국에서의 외국이주민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사서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점검하고, 사서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2016년 2월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319명의 사서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92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다문화수용성, 사서직, 사서의 다문화수용성, 이주민서비스, 다문화서비스, 다문화사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librarians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librarians'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this, this study collected its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conducted for the public librarians. The total 31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292 were final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librarians were the experience of overseas residence, of multicultural service and of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ways to cultivate librarians'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discussed.

Keywords: Multicultural acceptance, Librarianship, Librarian's multicultural acceptance,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 Immigrant services, Multicultural services, Multicultural society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4492)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idisfeel@hanmail.net)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41-264,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241]

## I. 서론

1980년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로 인구의 국제적 이주와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 세계화와 인적 이동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특히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법무부의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99,5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3.69%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국내 체류 외국인 5만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 약 190만여 명에 달하여 15년 사이에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와 3D 업종의 취업 기피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유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최병두 2011).

이 같은 외국인주민들의 급격한 국내 유입과 이후 이들의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다문화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격차해소와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밀집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채용지원센터 등)내에 다문화자료실 및 코너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다문화자료실 49개관이 조성·지원되었으며, 다문화프로그램은 누적 422개관이 지원받아 운영되었다. 매년 다문화자료실 조성이 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이 125개관으로 확대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처럼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확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도서관 현장에서 다문화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지역 단위의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서비스가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사서의 다문화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단위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정책개발에 대한 의지이다. 사서가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지, 외국이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외국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주민의 언어로 된 장서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협력, 도서관의 분위기 등 도서관의 전반적 시스템을 다문화적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가 관건이다(이연옥, 장덕현 2014). 이러한 인식과 의지를 형성하는 데는 사서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롯한 다문화수용성의 정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인 외국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다문화서비스의 방향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선 사서들이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사서직의 다문화인식과 태도를 비롯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점검하고, 공공도서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사서의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윤인진, 송영호 2011),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정미 2010; 윤인진, 송영호 2011).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수용성은 개별 연구별로 다양한 세부 요인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현(2007)은 ‘국가정체성, 귀화, 외국인 이주자 지원정책 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다문화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황정미(2010)는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수용’과 ‘이주민에 대한 집합적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위협 의 인지'라는 요소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황정미 외(2007)의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종족적 배타주의, 다양한 민족과 인종과의 공존을 지지하는 태도'를 세부요소로 하여 다민족다문화지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 윤인진·송영호(2009)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지향성'에 대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강진구(2008)는 '다문화 일반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김혜숙 외(2011)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다문화수용성을 파악하고 있다.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다문화적 태도(multicultural attitude)' 혹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태도(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등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Edmonds, Killen 2009; Verkuyten, Thijs 200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개념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해당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도,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정도, 이주민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 정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진단은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황정미 외 2007; 이자형 외 2014; 김경근, 황여정 2012; 박혜숙, 원미순 2010). 최근에는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문성은, 방은령 2014; 김환남 외 2013). 아울러 다문화정책 및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권승 2009; 원숙연, 박진경 2009; 장임숙 2010), 이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담당자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진단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김현아 2013). 하지만 사서직의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 하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격차해소와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선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자료실 및 코너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다문화서비스의 주체인 사서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활동이 부재하다.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하고, 이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비스제공자인 사서직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하고 성공적 다문화서비스를 준비하는 데도 필요한 작업이다.

## 2.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 개인적 경험

개인의 일상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방문 등을 비롯한 해외체류 경험이나 외국인과의 접촉, 국내외 외국인 친구의 존재 등 타인종 타민족을 비롯한 타문화와의 접촉 경험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타문화 및 이주민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심우엽 2010; 김혜숙 외 2011; 안상수 외 2012; Pike 2001; 인태정 2009; 하선정, 전주성 2014). 이와 같이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은 Allport의 접촉가설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집단 사이의 긴장과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구성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대감을 낮추고 상호간 이해를 높여서 외부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Brown 1995). 이러한 접촉가설에 따라서 해외체류 및 외국방문, 이주민 및 외국인 친구 등을 통해 외국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면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해외체류 경험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는 다소 혼란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다문화적 사고 및 동기 등 다문화적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인성혜, 이민영 2008).

#### 나. 업무적 경험

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문화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직무경험이 문화적 역량을 비롯한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혜지 2013; Campinha-Bacote 2002).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했던 경험이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박윤경 외 2008)가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정 지도 경험이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모경환, 황혜원 2007).

아울러, 업무관련 다문화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 연구들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연수가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김환남 외 2013; 박윤경 외 2008; 김혜숙 외 2011),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Teasley 2005). 하지만 이와 달리, 사회복지사 및

교사 대상의 연구에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수용성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한다(민선영 2008; 박선미, 성민선 2011).

이상과 같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공 도서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았다.

### Ⅲ.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황성욱·조운용·이철한(2014)이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sup>1)</sup> 이 척도는 ‘외국문화와 외국인주민에 대한 개방’,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외국인주민에 대한 거부 및 회피’, ‘외국인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 ‘외국인주민과 한국사회의 쌍방향 동화’,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로의 일방적 동화’, ‘외국인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7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에서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문화와 외국인주민에 대한 개방’은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 언어, 종교 등이 상이한 사람들이 타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전통, 언어, 종교 등 타문화가 가진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의 여부, 외국인주민을 국민으로 수용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지, 이웃이나 지역사회 및 국가에서 외국인주민의 유입과 정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를 측정한다(황정미 2010).

‘외국인주민에 대한 거부 및 회피’는 타민족·타문화 출신 외국인주민과의 일상적 관계 형성이나 조우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성이나 정도를 측정하고자 설정된 개념이다(맹진학 2009; 안상수 외 2012; 황정미

1) 이 척도를 채택한 이유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개발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문항개발을 위해 첫 번째 단계로 Munroe·Pearson(2006)의 ‘다문화태도 척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조사(황정미 외, 2007)’의 다문화수용성 측정 문항, 윤인진·송영호(2011)의 ‘다문화·다민족 지향적인 태도’,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의 다문화수용성 측정 문항, 그리고 황성동·임혁·윤성호(2012)의 ‘다문화태도 척도(Multicultural Attitude Scale)’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다음 단계로 다문화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와 다문화수용에 대한 의미 등에 관한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 측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문항 50개를 도출해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 박사급 연구원, 교수 등이 문항 검토 작업을 실시 후 최종 39개 문항이 도출되었다(황성욱, 조운용, 이철한, 2014: 178).

외 2007). 주류 한국인이 외국인주민과의 관계형성이나 상호교류과정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 등과 연관된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외국인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은 외국인주민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호호혜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문화수용성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안상수 외 2012). 이 요소에서는 외국인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의지를 측정한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인 지식정도를 말한다. 고정관념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수반하는 편견의 원인이 되며,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와 같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낳는다(Vincent Parrillo 2010).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요소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의 정도를 측정한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행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수자인 한국인들이 외국인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 다르게, 동등하지 않게 대하는지를 측정한다.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로의 일방적 동화’에서는 주류집단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인종 및 민족적 소수집단인 외국인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인 한국 문화로 용해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외국인주민과 한국사회의 쌍방적 동화’는 일방적 동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류 집단인 한국인이 인종적 문화적 소수집단이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소수집단과의 공존에 대한 기대 정도를 측정한다.

## 2. 설문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측정은 황성욱·조운용·이철한(2014)이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다문화수용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7점 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첫째,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경험으로서 해외체류 경험의 여부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해외거주 경험 및 기간을 조사하는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외국인 친구 및 친척 등과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외국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외에 사서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둘째, 이주민 및 다문화와 관련한 업무적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서의 이주민 대상의 서비스 경험 여부와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담당 경력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다문화교육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서로서 다문화 및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관련 교육경험의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6년 2월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2월15일부터 2월 29까지 15일간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설문을 배포한 결과 319명의 사서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19명의 공공도서관 사서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입력(coding) 이후, 무응답이 많거나 이른 바 ‘줄 응답’ 등과 같이 무성의한 응답을 포함한 케이스 2개를 파기하는 1차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쳤다. 또한, 차후 분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하라노비스의 거리(Mahalanobis distance)’ 개념을 이용하여 다변량극단치를 가지는 케이스를 확인하였고, 기준치( $\chi^2=61.098$ [df=36],  $p<.001$ ) 이상의 값을 가지는 25개의 케이스를 파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문항응답치의 정규성, 선형성,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데이터 정화(purification)과정을 거친 최종 292개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사 대상자 292명의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19.9%, 30대가 43.5%, 40대가 21.2%, 50대가 15.4%로 30대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70.9%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졸 14%, 전문대졸 7.0%의 분포를 보였다. 사서로서의 경력은 1년 이상 3년 이하가 28.4%, 3년 이상 5년 이하가 11%,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0.5%, 10년 이상인 자가 32.5%로 나타나 10년 이상인 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외거주 경험은 89%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주변에 외국인 친척이나 친구를 가진 사서는 40.4%에 달해 외국인 친척 및 친구를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주민이나 외국인 대상의 서비스 경험은 57.5%가 서비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문화서비스를 담당 경험은 40.1%의 사서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력은 1년 미만이 32.4%, 1년 이상 2년 미만이 32.4%, 2년 이상 3년 미만이 15.4%, 3년 이상 4년 미만 12.0%, 4년 이상 5년 미만이 2.7%였으며, 5년 이상 담당 사서는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20대	58	19.9
	30대	127	43.5
	40대	62	21.2
	50대	45	15.4
최종 학력	전문대졸	21	7.2
	대졸	207	70.9
	대학원졸	41	14.0
	무응답	23	7.9
사서 경력	1년 이상 - 3년 이하	83	28.4
	3년 이상 - 5년 이하	32	11.0
	5년 이상 - 10년 이하	60	20.5
	10년 이상	95	32.5
	무응답	22	7.5
주변 외국인 친척 및 친구 유무	주변에 거의 없다	174	59.6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있다	118	40.4
해외 거주 경험	없다	260	89.0
	1년 미만	6	2.1
	1년 이상 - 2년 미만	18	6.2
	2년 이상 - 3년 미만	2	.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7
	4년 이상	1	.3
이주민 대상의 서비스경험 유무	있다	168	57.5
	없다	120	41.1
	무응답	4	1.4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유무	있다	117	40.1
	없다	175	59.9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력	1년 미만	38	32.4
	1년 이상 - 2년 미만	38	32.4
	2년 이상 - 3년 미만	18	15.4
	3년 이상 - 4년 미만	14	12.0
	4년 이상 - 5년 미만	3	2.7
	5년 이상	6	5.1
다문화 교육경험 유무	있다	122	41.8
	없다	170	58.2

## IV. 연구결과

### 1. 다문화수용성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에 준하는 엄밀한 수준의 도구를 개발하여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도구의 개발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

제 단계는 38개 문항응답치를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은 직교회전(varimax)에 의한 주성분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계수가 0.50 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 대해 0.40 이상의 계수를 가진 5개 문항을 선별하여 제거하였고,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KMO=0.8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5192.12$ [df=528],  $p<0.001$ )하였다. 분석의 결과, ‘추출후 고유값(eigen-value) 1.00이상’을 충족하는 33개 문항을 포함하는 8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8개의 요인은 전체 자료 변량의 약 67.4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고) 각 요인은 거부회피 요인(5문항, 32.55%의 설명력), 쌍방동화 요인(5문항, 8.25%의 설명력), 차별 요인(4문항, 6.83%의 설명력), 고정관념 요인(6문항, 6.26%의 설명력), 문화개방 요인(5문항, 5.22%의 설명력), 일방동화 요인(4문항, 3.73%의 설명력), 국적취득1 요인(2문항, 3.37%의 설명력), 국적취득2 요인(2문항, 3.04%의 설명력) 등으로 명명되었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계수	분산 (%)	eigen-value
거부회피	수영장이나 공공목욕탕에 개발도상국 출신자로 보이는 이주민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역코딩)	0.86	30.34	10.0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자로 보이는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역코딩)	0.83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자리에 백인이 앉았을 때보다 흑인이 앉았을 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든다(역코딩)	0.83		
	이주민이 길을 물어보면 모른 척하고 싶다(역코딩)	0.76		
	다른 동네는 몰라도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역코딩)	0.72		
쌍방동화	이주민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0.85	8.72	2.88
	이주민의 가정은 한국의 가족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겨야 한다	0.81		
	이주민을 배우자로 맞이한 사람은 배우자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0.80		
	이주민의 가정은 한국 명절과 더불어 모국의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0.79		
	이주민과 내가 서로의 가치관과 신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0.71		
차별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84	6.46	2.13
	나는 이웃에 사는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84		
	나는 이주민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74		
	나는 이주민들이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74		
고정관념	이주민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역코딩)	0.72	6.11	2.02
	이주민은 주체성이 없는 수동적 존재이다(역코딩)	0.67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역코딩)	0.64		
	이주민과 한국인의 이혼의 원인은 이주민의 탓일 것이다(역코딩)	0.63		
	나는 우리사회의 이주민의 수용은 한계치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0.61		
	이주민은 학습 및 업무능력이 떨어진다(역코딩)	0.60		
문화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역코딩)	0.77	5.37	1.77

개방	나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4	3.79	1.25
	나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0.70		
	나는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싶다	0.60		
	나는 외국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51		
일방 동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역코딩)	0.79	3.36	1.11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자녀는 부모나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역코딩)	0.77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역코딩)	0.63		
	한국인이 이주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주민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야 한다(역코딩)	0.53		
국적 취득1	부모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0.82	3.24	1.07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산 이주민은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0.77		
국적 취득2	나는 한국국적을 가진 이주민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역코딩)	0.77	3.24	1.07
	나는 국적취득이나 한국어 능력에 상관없이 피부색이 다르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역코딩)	0.73		

두 번째 단계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추출된 33개 문항과 8개의 요인을 이용해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과 요인을 유지한 최초모형의 적합도가 지수별로 조금씩 부족하여, 적합도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고).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변화

모형	RMR	RMSEA	GFI	AGFI	NFI	TLI	CFI	PNFI	PCFI
최초	.085	.057	.833	.799	.831	.897	.909	.735	.804
수정	.064	.051	.919	.886	.928	.959	.968	.732	.764

적합도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 문항응답치의 정규성을 검증하여 첨도와 왜도가 절대값 1을 초과하는 4개 문항을 삭제하였고, 각 요인별 요인계수 0.5 미만의 2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적 1 요인이 제거되었다(채구목 2014). 이후 문항 간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Amos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고려하여 각 문항 간 오차항의 공분산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김계수 2005) (<표4> 참고).

다음으로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 복합요인신뢰도(Composite Factor Reliability: CFR) 분석<sup>2)</sup>, 평균추출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검증<sup>3)</sup> 등을 통해 신뢰도

2) 신뢰도계수는 문항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항의 단일차원성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한 단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항이 해당 요인의 성격을 표현하기에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복합 요인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황성욱·조윤용·이철한 2014). CFR의 기준치는 '0.7 이상'이며, 요인별 '요인계수의 합<sup>2</sup> / (요인계수의 합<sup>2</sup> + 측정오차 분산의 합)'으로 계산되며, 측정오차 분산은 '1 - 요인계수<sup>2</sup>'으로 계산된다.

를 검증하였으며, 2개 문항과 2개 요인이 제거되었다. 신뢰도계수는 모든 요인에서 0.67 이상으로, 복합요인신뢰도는 0.70 이상, 평균추출분산 측정치는 0.53 이상으로 각각의 신뢰도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었다(<표 4> 참고).

수정작업이 완료되어 다음의 <표 4>와 같이 20개 문항과 ‘거부회피’, ‘쌍방동화’, ‘차별’, ‘고정관념’, ‘문화개방’이라는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수정모형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해당 문항과 요인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서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계수	Cron. α	CFR	AVE
거부 회피	다른 동네는 몰라도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역코딩)	0.88	0.87	0.86	0.60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개발도상국 출신자로 보이는 이주민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역코딩)	0.76			
	이주민이 길을 물어보면 모른 척하고 싫다(역코딩)	0.75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자로 보이는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싫다(역코딩)	0.71			
쌍방 동화	이주민의 가정은 한국의 가족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겨야 한다	0.80	0.87	0.85	0.53
	이주민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0.79			
	이주민과 내가 서로의 가치관과 신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0.69			
	이주민의 가정은 한국 명절과 더불어 모국의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0.73			
	이주민을 배우자로 맞이한 사람은 배우자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0.60			
차별	나는 이웃에 사는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95	0.90	0.91	0.72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96			
	나는 이주민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73			
	나는 이주민들이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0.74			
고정 관념	이주민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역코딩)	0.82	0.86	0.86	0.55
	이주민은 학습 및 업무능력이 떨어진다(역코딩)	0.78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역코딩)	0.74			
	이주민은 주체성이 없는 수동적 존재이다(역코딩)	0.73			
	이주민과 한국인의 이혼의 원인은 이주민의 탓일 것이다(역코딩)	0.63			
문화 개방	나는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싶다	0.88	0.67	0.70	0.55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0.57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추출분산 측정치와 각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squared correlations)을 비교하였다(황성욱 · 조윤용 · 이철한 2014). 결

3) 신뢰도계수와 CFR 측정치는 특정변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정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추출분산 검증이 권고되고 있으며(황성욱 · 조윤용 · 이철한 2014), ‘요인계수<sup>2</sup>의 합 / (요인계수<sup>2</sup>의 합 + 측정오차 분산의 합)’으로 계산되며, 기준치는 ‘0.5 이상’이다.

과적으로 모든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값은 각 요인의 평균추출분산 측정치보다 낮게 확인되어, 판별타당도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고).

<표 5> 요인별 상관관계

요인명	거부회피	쌍방동화	차별	고정관념
쌍방동화	0.353(0.125)*	1		
차별	0.566(0.320)	0.415(0.172)	1	
고정관념	0.603(0.364)	0.351(0.123)	0.551(0.304)	1
문화개방	0.551(0.304)	0.491(0.241)	0.397(0.158)	0.444(0.197)

\* ( ) 안은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 2.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의 종속변인에 해당되는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은 앞서 도출된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었으며,<sup>4)</sup> 사서 292명의 다문화수용성 평균점수는 약 5.47로 확인되었다. 평균점수는 중간값(3.5)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up>5)</sup>

이 같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개인적 경험을 비롯하여 사서의 다문화관련 업무적 경험이 다문화수용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주목하고, 개인적 경험과 업무적 경험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경험으로서 해외체류 경험의 여부 및 기간, 외국인 친척 및 친구의 여부, 사서경력, 학력, 연령 등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변인을 구성하였고, 아울러 사서의 다문화 관련 업무적 경험으로서 이주민대상의 서비스 경험 여부,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여부와 경력, 다문화서비스 관련 교육경험 여부를 다문화 관련 업무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과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 점수 간의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이들 표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6>에서 응답자의 개인적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1]을 보면, 해외거주 경험, 해외거주 기간, 학력, 연령, 사서경력이라는 4가지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24.9%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응답자의 개인적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해외거주 경험, 해외거주 기간, 학력, 연령, 사서경력 중에서 해외거주 경험만이 다문화수용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 < 0.001$ ).

4) 20개 문항의 신뢰도계수( $\alpha$ ) = 0.913으로 확인되어 평균값으로 이들 문항을 대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최소값은 3.5점, 최대값은 7점, 표준편차는 0.68로 확인되었다.

〈표 6〉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b	s.e.	$\beta$	공차	b	s.e.	$\beta$	공차
상수	4.02 ***	0.30			6.63 ***	0.22		
연령	0.02	0.05	0.02	0.55	0.00	0.03	0.00	0.53
학력	0.02	0.08	0.01	0.97	0.06	0.05	0.04	0.95
사서 경력	0.01	0.04	0.03	0.55	0.02	0.02	0.03	0.53
해외거주 경험有D	1.24 ***	0.22	0.54	0.31	0.63 ***	0.13	0.28	0.29
해외거주 기간	-0.01	0.01	-0.05	0.31	-0.01	0.01	-0.07	0.30
이주민서비스 경험有D					0.05	0.05	0.03	0.82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有D					-0.29 ***	0.06	-0.21	0.61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력					-0.00	0.00	-0.03	0.64
다문화교육 경험有D					1.01 ***	0.05	0.73	0.83
<i>F-value</i>	17.016 ***				87.577 ***			
<i>R</i> <sup>2</sup>	0.249				0.748			
$\Delta R^2$	0.249				0.508			

\*\*\*p<0.001

셋째, 개인적 변인에 사서의 다문화 업무 관련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이주민서비스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력, 다문화교육 경험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2]에서는 회귀식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74.8%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서 설명력이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투입한 이주민서비스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력, 다문화교육 경험 변인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50.8%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개인적 변인에 비해 이주민서비스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및 경력, 다문화교육경험을 비롯한 다문화관련 업무적 경험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보다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서의 다문화적 업무 경험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2]를 보면,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서비스 경험, 다문화교육 경험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0.001). 해외거주 경험과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 중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은 음의 값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이 있을수록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해외거주 경험을 비롯하여 다문화서비스 경험, 다문화교육 경험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외거주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다문화 및 도서관의 다문화와 관련

한 교육 경험 또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다문화서비스 경험도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해외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다문화서비스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수 즉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서비스 경험, 다문화교육 경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 및 도서관현장이 다문화적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자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취지는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다문화서비스의 방향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점검하고,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서비스 경험, 다문화교육 경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사서의 개인적 경험으로서 해외거주 경험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해외체류 경험을 통해 타인종 타민족을 비롯한 타문화와의 접촉 경험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타문화 및 이주민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심우엽 2010; 김혜숙 외 2011; 안상수 외 2012; Pike 2001; 인태정 2009; 하선정, 전주성 2014)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서의 6개월 이상의 해외거주 경험은 외국 문화에 대한 표면적인 접촉 형태인 해외여행이나 단순 관광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해외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주체험'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주민이라는 '소수자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나 차별, 위축의 감정 등을 경험했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의

이주민을 보면서 자신의 해외거주경험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안상수 외 2012).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타국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와 접촉의 면이 넓어지고 해당 사회의 생활과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외거주를 체험한 사서들의 경우, 한국의 이주민을 바라볼 때 한국 중심의 사고방식보다는 더욱 중립적으로 이주민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 친척 및 친구의 유무는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및 외국인 친구 등을 통해 외국인들과의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면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둔 사람보다 친구 중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 직장/학교 동료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 사람의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직장/학교 동료 등은 모두 일상에서 접촉의 빈도가 높은 대상이지만, 이러한 대상을 가진 사람의 다문화수용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접촉 여부나 빈도보다는 어떤 형태의 관계 속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지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안상수 외 2012: 156-157).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친척 및 친구 변수는 접촉빈도 및 접촉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서의 다문화서비스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다문화서비스 경험이 있을수록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는 앞서 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연구(민선영 2008; 최혜지 2013; Campinha-Bacote 2002)와 대치되고 있다. 한편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관련 업무 경험이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모경환, 황혜원 2007)를 고려한다면 향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유추가 가능하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실천의 역사가 짧다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비롯한 이주민 대상의 서비스는 사서에게 생소하며 이주민 및 외국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단계이기보다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조용완, 이수상; 이연옥, 장덕현 2011). 즉, 아직 일천한 다문화서비스의 역사와 확보되지 않은 전문성, 그리고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성 강화 프로그램이 사서 측면의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수혜대상인 이주민 측면의 원인도 있다. 즉, 다문화서비스를 처음 담당하게 되는 사서들은 대부분 이상적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업무에 임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달라 다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호응은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들 중 일부는 프로그램 자체보다 외적으로 지원되는 물품이나 식사 등의 반대급부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태도에 대한 실망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사서들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지적은 비단 도서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행정서비스 실천 현장에서도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다만, 보다 철저한 조사와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연구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는 달리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 경험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수 즉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서비스 경험, 다문화교육 경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가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다문화교육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앞서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다문화서비스 담당 사서 대상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보다 증대된다. 현재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서비스와 관련 직무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서의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서 대상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진단하고 하위요인별 점수에 따라 세부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이 연구의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인인 5개의 요인(외국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문화개방’,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이주민에 대한 ‘거부 회피’, 이주민과 한국사회의 ‘쌍방동화’,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일부 요인의 평균이 낮거나 높게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 사서 대상의 다문화관련 직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사서 대상의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도서관협회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임시적이며 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이 연구 결과에 의거해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보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다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에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여 그 변화정도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현직 사서의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미래의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 및 대학원 과정에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진구. 2008.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문화콘텐츠연구』, (4): 53-77.
- 권승. 2009.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담당공무원의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36(1): 35-60.
- 김경근, 연보라, 심재희. 2015. 교사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2(1): 309-338.
- 김경근, 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계수. 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데이터솔루션.
- 김환남, 이선애, 이은경. 2013. 한국형 다문화수용성척도(KMCD)를 활용한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2): 123-144.
- 김현아. 2013.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상담자 자질의 관계. 『상담학연구』, 14(3): 1717-1737.
- 김혜숙 외.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 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맹진학. 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323-348.
- 모경환, 황혜원. 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3): 79-100.
- 문성은, 방은령. 2014.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교육 실체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교수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285-313.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박선미, 성민선. 2011. 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적 인식에 미친 영향. 『사회과교육』, 50(3): 1-15.
-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
- 박혜숙, 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심우엽.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안상수 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원숙연, 박진경. 2009.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201-224.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4(1): 143-192.
- 이연옥, 장덕현. 2013.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 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357-384.
-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5-34.
- 인태정. 2009.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장임숙. 2010.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 247-270.
- 조용완, 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69-297.
- 채구묵. 2014.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양서원.
- 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1-33.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시민사회와 NGO』, 5(2): 147-173.
- 최혜지. 2013.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적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0: 239-254.
- 황성동, 임혁, 윤성호. 201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1): 125-150.
- 황성욱, 조운용, 이철한. 2014.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3): 167-196.

- 황정미 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3(4): 152-184.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Brown, R. 1995. *Prejudice: Its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 Blackwell.
- Campinha-Bacote, J. 1999. "A Model and Instrument for Addressing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 Car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8(3): 181-184.
- Edmonds, C., & Killen, M. 2009. "Do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acial attitudes relate to their intergroup contact and cross-race relationships?" *Group Process & Intergroup Relations*, 12(1): 5-21.
- Pike, G. R. 2001. "The differential effects of on-and-off campus living arrangements on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Journal of Student Affairs Research and Practice*, 39(4): 283-299.
- Parrillo, Vincent. 2010. *Understanding race and ethnic relations*. Boston: Pearson/Allyn and Bacon.
- Teasley, M. L. 2005. "Perceived Levels of Cultural Competence Through Social Work and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Urban School Social Worker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1(1): 85-98.
- Verkuyten, M. & Thijs, J. 2002. "Racist victimization among children in the Netherlands: the effect of ethnic group and school." *Ethnic and Racial Studies*, 25(2): 310-33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Jin Gu.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on Multicultural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4): 53-77.
- Kwon, Seung. 2009. "The Tasks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Realiza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Based on analyses of understanding of public servants regarding multi-culturalism." *Social Welfare Policy*, 36(1): 35-60.
- Kim, Kyung-Keun, Bora Youn, and Jae-Hwee Shim. 2015.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Teacher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32(1): 309-338.

- Kim, Kyung-Keun, and Yeo-jung Hwang. 2012.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9(1): 87-117.
- Kim, Hwan-Nam, Sun-Ae Lee, and Eun-kyung Lee. 2013. "An Analysis About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Using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3(2): 123-144.
- Kim, Hyun-Ah.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Counsel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3): 1717-1737.
- Kim, Hai-Sook, Do-Yeong Kim, Hee-Cheon Shin, and Jou-Yeon Yi. 2011. "Psychological Adaptation of Koreans in the Multicultural Era: The Effects of Social Identity, Acculturation-related Ideologies, and Intergroup Contact on Prejudice Against Migra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51-89.
- Maeng, Jin Hak. 2009. "Determinants of the Korean Multicultural Exclusive Attitude: An Analysis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 36(3): 323-348.
- Mo, Kyung-Hwan and Hye-Won Hwang. 2007. "A Study on Multicultural Awarenes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focused on Korean and Social Studies Tea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3): 79-100.
- Moon, Seong-Eun and Eun-Ryoung Bang. 2014.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e Acceptability on the Practices of Multi-cultural Teaching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8(2): 285-313.
- Park, Sun-mee and Min-sun Sung. 2011. "The Impact of Teachers'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on their Multicultural Awareness." *Social studies education*, 50(3): 1-15.
- Park, Yun-Kyoung, Kyung-Hee Sung, and Young-Dal Cho. 2008.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ttitude towards cultural diversity and students

-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0(3): 1-28.
- Park, Hye-Sook and Mi-Soon Won. 2010. “An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with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2): 303-325.
- Shim, Woo-Youp. 20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4): 43-63.
- Won, Sook-Yeon and Jin-Kyoung Park. 2009. “Multiculturalism and Policy Orientation for Foreigners: A Focus on the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7(3): 201-224.
- Yoon, In-Jin and Young-Ho Song. 2011.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4(1): 143-192.
- Lee, Yeon-Ok and Chang, Durk-Hyun. 2013. “Strategies for the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 357-384.
- Lee, Ja-Hyeong, Hyun-Joon Park, and Kyung-Keun Kim. 2014.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1(3): 5-34.
- Jang, Im-Suk. 2010. “The Effects Multicultural Awareness on Policy Attitud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xperts group.”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2(1): 247-270.
- Cho, Yong-Wan and Lee, Soo-Sang. 2011.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69-29.
- Choi, Byung-Doo. 2011. “Toward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Research 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1: 1-33.
- Choe, Hyun. 2007. “multicultural citizenship.” *Civil society & NGO*, 5(2): 147-173.
- Choi, Hye-Ji. 2013. “Impa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Social Worker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0: 239-254.

- Hwang, Sung-Dong, Hyuk Im, and Sung-Ho Yun. 2012.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1): 125-150.
- Hwang, Sung-wook, Yoon-Y Cho, and Cheol-han Lee. 2014. "How to Evaluate Multicultural Acceptanc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Scal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2(3): 167-196.
- Hwang, Jung-Mee. 2010.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3(4): 152-184.

